

정열의 나라 브라질, 이제 육계산업의 경쟁국가이다



윤 현 중 양계PM
바이엘코리아(주)

세계에서 육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중 하나인 브라질. 우리나라로부터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그저 삼바춤과 축구만 떠오르던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양계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국내에도 브라질에서 닭고기가 수입되고 있고, 수입량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브라질의 양계관련 산업 종사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브라질 양계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브라질 양계산업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통해서 브라질 양계산업을 엿보고자 한다.

1. 브라질 양계산업

브라질의 육계 생산량은 대략 연간 45억수분 정도이다. 이는 국내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브라질의 육계산업은 2005년까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오다 2006년 처음으로 역신장을 했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전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량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며, 2007년 이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1〉 브라질의 육계 도계수수

연도	2003	2004	2005	2006
도계수(백만수)	3,907	4,277	4,695	4,572



브라질 육계 농장의 계사 내부 모습

브라질 육계 품종은 코브가 50%, 로스가 30%, 기타 품종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육용종계는 매월 3백만수 정도가 입식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약 3천4백만수의 육용종계가 입식되었다. 5~6백만수 정도 입식되는 국내와

비교하면 6배 정도 종계 시장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종계 입식량과 육계 생산량을 보면(종계는 6배인데, 육계 생산량이 10배) 국내 종계보다 생산성이 월등히 좋음을 알 수 있다.

산란계의 경우는 일본계 이민자들이 생산과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산란계는 매월 6백만수 정도가 입추되고 있으며 대략 연간 72백만수 정도가 입식되고 있다.

브라질 양계산업의 특징중 하나는 생산량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산란계는 상파울로주에서 주로 밀집되어 계란을 생산하고 있고, 육계는 상파울로주 남쪽지역에 주요 계열화 업체가 몰려있다.

2. 육계 생산 단가 / 출하가격

브라질의 2006년도 육계 평균 출하가격은 kg당 약 635원이다. 2006년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육계 생산량도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정상적인 가격은 이 보다는 다소 높다고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계 사료의 주원료를 브라질은 자체 생산하고 있으므로 사료 가격이 국내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가령 사료내 주요 곡물인 옥수수는 1톤에 143,300원 정도이고 대두박은 260,800원 정도이다.

생산단가가 낮음에 따라 계육의 가격 또한 낮아서 시장에서 쉽게 포장된 닭고기를 살 수 있다. 닭고기는 포장되어 냉장육과 냉동육으로 나눠져 유통되고 있다. 냉장육의 경우 대개 생산된 지 2~3일 이내에 판매가 되고 냉동육은



브라질 마트의 포장 닭고기 : 가슴살 부위 kg의 가격이 대략 2,000원 정도 한다. 가격은 부위별, 가공회사별로 다양하다.

수개월로 긴 유통기간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의 계열화 회사는 닭고기만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등 거의 전축종에 걸쳐서 생산, 유통을 하고 있다. 할인 매장이 가면 한 회사 이름으로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계육 수출량과 내수 소비량

브라질 육계 생산량의 약 70%는 브라질에서 자체 소비가 된다. 의외로 수출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로 작았다. 2005년도의 경우 브라질은 월평균 231,000톤의 닭고기를 수출했다.

주요 수출대상국가는 아시아와 중동지역 국가이다. 아시아는 수출량과 수출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브라질 지역별 계육 수출량(2006년)

지역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수출량(천톤)	607	591	446	226	115

그러면 전체 생산량의 70%를 소비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닭고기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 브라질 사람들의 1인당 닭고기 평균 섭취량은 약 35.6kg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이 대략 10kg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브라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닭고기를 먹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아직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20kg씩만 닭고기를 섭취해도 현재 시장의 2배가 커지는 것이니 우리는 아직 기회가 많다 할 것이다.

4. 종계 백신 프로그램

브라질 육용 종계의 방역 및 백신 프로그램을 보면 질병 발생 양상에 따라서 IBD, IB, ND와 같은 기본 질병 백신은 국내처럼 철저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잘하지 않는 CAA, 뉴모 바이러스 백신 등을 전체 종계군의 절반 정도에 하고 있었다. 뜻밖인 점은 레오바이러스 백신의 접종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브라질은 산란저하증후군(EDS) 발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계, 산란계에서 거의 전계군이 EDS가 포함된 사독 오일 백신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브라질 양계 질병 전문가들은 산란저하증후군이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프로그램에 반드시 EDS가 들어간 백신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는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인데,



백신 접종하는 브라질 양계 농장 직원 모습 : 연속주사기로 접종하는 모습이 국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유럽의 경우도 많은 농장에서 아직도 EDS가 들어간 혼합 오일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육용종계는 살모넬라 백신의 경우 사독 오일 백신으로만 2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식중독균인 S. enteritidis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티푸스균과는 다르며 백신接种의 목적이 닭의 질병 예방이 아닌 식중독균 차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육계

브라질 육계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중 국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전 육계에게 1일령에 마렉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닭에 마렉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1일령 육계에 HVT strain의 마렉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는 마렉으로 인한 도계의 품질 저하증상(마렉병의 피부병변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부의

균질도가 떨어지는 등 상품성이 감소할 수 있다)을 막고, 마렉으로 인한 면역억제증상을 예방하는 것이 육계에도 마렉 백신을 접종하는 주요 목적이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뉴캐슬병(ND)의 경우 전체 육계의 약 20% 정도만이 백신을 접종한다고 한다. 일단 육계 계열화 업체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며 소수로 사육하는 농가에서 접종한다고 한다.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ND가 잘 발생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다.

뉴캐슬병 백신 접종을 잘 하지 않는 반면에 전염성 기관지염(IB)의 경우에는 약 80% 정도의 계군에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IB 생독 백신의 경우 1수분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1/3수분을 접종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수당 1/3수분 분량을 접종한다고 한다.

감보로 백신의 경우는 국내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브라질도 강독형 감보로가 상재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독 플러스형 백신을 1회 접종한다.

얼마 전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다. 대부분 뉴스의 초점이 한우 농가나 채소, 과일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것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어찌 생각해보면 양계산업은 경쟁력이 있어서 다루질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브라질의 육계 농장 모습 : 전반적으로 시설은 국내 양계장보다 더 나아 보이지는 않았다. 이곳은 겨울이 없고 항상 초여름에서 여름 정도의 날씨가 계속된다.

어쨌든, 이제 확실한 점은 우리 양계산업의 경쟁상대는 더 이상 국내의 옆 농장이나 다른 계열화 업체가 아니라 전세계, 그것도 가장 경쟁력 있다는 브라질이나 미국의 농장과 육계 계열화 업체들이라는 점이다. 양계산업은 지난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해왔다. 앞으로도 전세계의 양계농가와 경쟁하며 우리 국민의 먹거리 제공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국민의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선진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의 1/3 수준이다. 즉, 성장 가능성이 아직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가 증가해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늘어난 소비는 고스란히 수입 닭고기가 차지할 수도 있다. 늘어난 소비량의 대부분을 국내 생산량 증가로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전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올릴 때 양계산업의 희망은 국내가 아닌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